

본 자료는 2004.6.25(금), 夕刊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도자료 (산업자원부 공보관실)	담당과	시장개척과
		담당자	권평오 과 장 윤선영 사무관
		전화번호	2110-5322
KOTIS·나우누리 : go mocie, 천리안·하이텔 : go allim, 인터넷 : www.mocie.go.kr			

범정부차원에서 서비스수출증대 적극 추진키로

- 6.25일 경제장관간담회, 서비스수출 증대대책 확정 -

- 문화상품·소프트웨어·기술 등의 서비스수출기업도 상품 수출에 준하는 무역금융·수출보험 등의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됨. 또한 수출초보단계 서비스수출기업은 법률·마케팅 등의 컨설팅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되며, 서비스수출 유망시장 조사비용의 70%를 정부가 지원함
- 정부는 6.25일 아침 열린 경제장관간담회에서 범정부적인 서비스산업 육성전략의 일환으로 산자부 등 관계부처가 공동 마련한 이같은 요지의 「서비스수출 증대대책」을 확정하였음
- 세계 서비스무역은 2003년 1조 7,626억불(수출액 기준)로서 상품무역보다 높은 증가세를 보이고 있고, 경제의 서비스화, 선진국기업의 아웃소싱 확대, 서비스시장 개방논의 진전 등으로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늘어날 전망이다, 우리의 경우 상품수출에 비해 서비스수출이 저조하여 서비스 무역에서 매년 막대한 적자를 기록하고 있음

- 우리나라 서비스수출은 작년 327억불로서 상품수출 대비 16.9% 수준에 불과하여 OECD 회원국 평균인 26.9%에 크게 미달하고, 전세계 서비스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1.8%(세계 17위)로 상품수출(2.6%, 세계 12위)에 비해 낮으며, 우리나라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98년 7%대에서 최근에는 5%대로 하락하는 등 취약성을 보이고 있음
- 이 결과, 서비스수지는 '90년에 적자로 전환된 이후, 해외 여행·로얄티·해외광고·컨설팅 비용 등의 증가로 외환 위기 직후인 '98년을 제외하고는 매년 큰 폭의 적자를 기록('03년에는 76억불 적자로 상품수지 흑자 222억불의 34.3%)하여 경상수지 흑자폭을 상당부분 상쇄하고 있는 상황임

※ 주요 선진국의 서비스수지('03) : 미국 642억불 흑자, 영국 172억불 흑자, 프랑스 163억불 흑자, 독일 553억불 적자, 일본 395억불 적자

□ 정부는 서비스수출이 지속적인 경상수지 흑자기조 유지 및 국가경쟁력 강화의 관건이며, 국민소득 2만불의 조기 실현을 위해서는 세계경제의 지식정보화에 따른 서비스시장 규모의 증가추세에 부응하여 서비스수출을 획기적으로 증대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 서비스 부문별 소관부처가 중심이 되어 각 서비스 업종별 경쟁력강화대책과 부문별 특성에 맞는 수출증대대책을 수립·추진하고,
- 모든 서비스 수출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수출지원과 인프라를 확충하여 서비스기업의 수출여건이 개선될 수 있도록 아래와 같은 4가지 대책을 집중 추진키로 하였음

① 상품수출에 준하는 수출지원제도의 확충

- 서비스수출기업에 대하여 무역금융 대출이 활성화되도록 韓銀을 통해 금융기관에 대한 창구지도를 강화하면서, 서비스수출의 특성에 맞는 맞춤형 수출지원제도 마련
- 엔지니어링·SI 등 프로젝트성 서비스수출에 대하여도 플랜트수주사와 같이 타당성 조사비용 등을 지원

② 서비스수출 지원 인프라의 확충

- 대외무역법상 '무역'으로 인정되는 서비스의 범위를 현행 지식서비스*에서 전체서비스로 확대

* 대외무역법을 개정하여 2004.1.1일부터 문화콘텐츠·SI·비즈니스 컨설팅 등 지식서비스를 '무역'의 범위에 포함

- 내년부터 구체적인 서비스 부문별 교역흐름을 파악할 수 있도록 서비스교역통계 분류체계를 현행 28개 세항목에서 70개 세항목으로 세분화하고, 상품교역과 같이 매월 부문별 서비스수출동향 및 전망, 해외시장 동향 등을 분석·공표
- 무역협회에 「서비스무역지원센터」 설치 및 KOTRA 「IT·지식서비스 수출지원센터」의 보강을 통하여 수출 초보단계 기업에 대한 법률·해외마케팅의 컨설팅 지원
- 서비스 부문별 「표준 수출계약서」를 작성·보급

③ 해외마케팅 지원 및 국제협력 강화

- 서비스수출 유망지역 소재 KOTRA 무역관에 지식서비스 전문가를 보강하여 해외마케팅 지원거점으로 운영하면서, 서비스 분야별 수출지원기관간의 연계체제 강화

- 해외마케팅 지원기관과 업계 공동의 수출유망시장 조사 및 현지Agent 발굴 등의 비용 지원 (소요비용의 70% 수준)
- 서비스수출기업의 해외전시회 및 시장개척단 참가지원을 확대하고, 해외 한국상품전 개최시 문화행사 병행

④ 범정부적인 서비스수출 지원체제 운용

- 산자부장관 주재 「서비스수출대책회의」를 반기별로 개최하여 서비스수출동향 점검 및 수출증대방안 강구
- 매년 서비스수출업계의 수출현황·수출애로 및 건의 사항 등에 대한 종합적인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발굴된 애로사항에 대하여는 관련 지원기관간의 T/F를 통해 해결
- 수출유망 지식서비스기업을 발굴, 현행 제조업 중심의 '수출유망 중소기업'에 준하여 해외시장정보 제공에서 바이어 발굴, 수출대금 회수까지 일괄 지원
- 서비스표준 제정·보급 확대, 외국의 서비스무역장벽 해소, 외국기업의 지재권 침해 대응지원 등 해외진출여건 개선

□ 산자부는 금번 대책이 범정부적으로는 최초로 서비스수출에 대한 지원체제의 개선 및 인프라의 확충 등 체계적인 대책을 마련하였다는데 의의가 있으며,

- 금번 대책을 계기로 정부·업계의 서비스수출 중요성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수출증대를 위한 민관 공동의 노력이 촉진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힘

<별첨> : 서비스수출 증대대책

서비스수출 증대대책

2004. 6. 25

산업자원부, 문화관광부
정보통신부, 해양수산부

목 차

I. 세계 서비스무역 동향	1
II. 우리나라 서비스수출 현황 및 제약요인	2
1. 우리나라 서비스수출 현황	
2. 우리나라 서비스수지 동향	
3. 서비스수출 제약요인	
III. 그간의 추진실적	7
IV. 서비스수출 증대대책	8
1. 상품수출에 준하는 수출지원제도의 확충	
2. 서비스수출 지원 인프라의 확충	
3. 해외마케팅 지원 및 국제협력 강화	
4. 범정부적인 서비스수출 지원체제 운용	
< 주요 서비스 분야별 수출증대대책 >	13
V. 향후 추진일정	16

I. 세계 서비스무역 동향

□ 세계 서비스무역은 2003년 1조 7,626억불(수출액 기준)로서 상품무역보다 높은 증가세 시현

- * 상품수출(연평균 증가율, %) : ('80~'90) 5.4 → ('90~'03) 6.1
- * 서비스수출(연평균 증가율, %) : ('80~'90) 8.0 → ('90~'03) 6.4

○ 국가별로는 美·英 등 선진국이 서비스수출을 주도한 가운데, 최근 중국·인도 등 개도국의 수출도 급증 추세

- * 주요 국가의 서비스 수출현황(억불, '03) : 미국 2,825, 영국 1,295, 독일 1,117, 일본 702, 중국 445, 인도 233('02)

○ 부문별로는 90년대 이후 정보통신·문화·비즈니스서비스 등의 수출비중이 높아지는 추세

< 주요 서비스부문별 세계시장 비중 (%) >

부문별	'90	'95	'98	'00	'01	'02
· 운수서비스	28.5	25.2	23.0	23.1	22.9	22.4
· 여행서비스	33.8	33.7	32.6	32.0	31.2	30.6
· 기타서비스	37.6	41.1	44.4	44.9	45.9	47.0

* 주 : 1. 기타서비스는 정보통신, 문화, 무역관련 서비스, 리스, 컨설팅·광고·R&D·시장조사 등 포함 (자료 : WTO)

2. WTO는 서비스교역을 ①국경간 이동, ②해외소비(예: 관광, ③상업적 주재(예: 외국은행지점, ④자연인의 이동(예: 패션모델 컨설턴트) 등 4가지로 구분

□ 경제의 서비스화, 선진국기업의 아웃소싱 확대*, WTO를 중심으로 한 서비스시장 개방 논의 진전 등에 힘입어 서비스무역은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늘어날 전망

* 전세계 IT 아웃소싱 시장규모는 '03년 1,768억불→'04년 1,881억불→'07년 2,356억불 전망 (가트너그룹, 2003)

Ⅱ. 우리나라 서비스수출 현황 및 제약요인

1. 우리나라 서비스수출 현황

□ 2001~2002년에 2년 연속 감소세를 보이다가 2003년에는 327억불로 큰 폭(15.2%) 증가

- 전체 서비스수출중 운수서비스 52%(170억불), 여행서비스 16%(52.6억불), 기타서비스 32%(104.5억불) 차지
- 최근 운수서비스 수출은 꾸준히 증가한 반면, 기타서비스는 연도별로 증감을 반복하고, 여행서비스는 감소추세 지속

< 주요 부문별 서비스수출 동향 >

(억불, %)

부 문 별	'98	'99	'00	'01	'02	'03
전체 서비스수출	255.6 (Δ2.8)	265.3 (3.8)	305.3 (15.1)	290.5 (Δ4.8)	283.9 (Δ2.3)	327.0 (15.2)
• 운수 서비스	102.0 (Δ7.3)	114.7 (12.4)	136.9 (19.4)	131.8 (Δ3.7)	132.2 (0.3)	170.0 (28.6)
• 여행 서비스	69.1 (46.0)	68.4 (Δ1.0)	68.3 (Δ0.1)	63.8 (Δ6.6)	59.4 (Δ7.0)	52.6 (Δ11.5)
• 기타 서비스	84.5 (Δ20.0)	82.2 (Δ2.7)	100.1 (21.8)	94.9 (Δ5.2)	92.4 (Δ2.7)	104.5 (13.1)
- 지재권사용료	2.6 (3.2)	4.6 (75.0)	6.9 (51.2)	9.2 (34.2)	8.4 (Δ9.6)	13.2 (58.6)
- 사업 서비스	65.8 (Δ23.8)	60.3 (Δ8.3)	72.0 (19.3)	63.9 (Δ11.3)	60.1 (Δ6.0)	66.7 (11.1)

* 자료 : 한국은행 (괄호내는 전년대비 증감율)

□ 서비스수출의 국민경제적 비중과 세계속 위상 저하 추세

- 서비스수출/GDP 비중이 '98년 7%대에서 최근 5%대로 하락

* 서비스수출/GDP(%) : ('98) 7.4 → ('99~'01) 6.0 → ('02) 5.2 → ('03) 5.4

- 전 세계 서비스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00년 2.0%로 상승하였다가 '03년 1.8%(세계 17위)로 하락

* 전 세계 서비스수출중 비중(%) : ('98) 1.8 → ('00) 2.0 → ('03) 1.8
 * 상품수출은 '03년 전 세계 시장의 2.6% 점유 (세계 12위)

- 상품수출 대비 서비스수출 비중('03)이 16.9%로 일본보다는 높으나, OECD 회원국 평균인 26.9%에는 크게 미달

* 서비스수출/상품수출 ('03, %) : 미국 39.0, 영국 42.6, 일본 14.9

< 참고 > : 주요 지식서비스 수출동향

- ① 문화콘텐츠 수출은 게임·캐릭터·애니메이션 등을 중심으로 2002년부터 본격화되고, 최근에는 영화수출 급증

(백만불)

구 분	게임	캐릭터	애니메이션	영화·방송	출판 등	계
'02	160	86	82	44	92	464
'03(추정)	165	107	77	73	42	550

* 관련단체 잠정 집계 수치

- ② 정보통신서비스 수출은 컴퓨터 관련 서비스를 중심으로 '00~'03년간 연평균 82%의 높은 증가세 시현

(백만불)

구 분	패키지S/W	컴퓨터관련 서비스	디지털컨텐츠	계
'02	87	299	85	471
'03	76	399	118	593

* 자료 : 소프트웨어진흥원

- ③ 비즈니스서비스·디자인은 중국 등으로의 수출 초보단계

* 중국에 5백석 규모의 Internet protocol 콜센터 구축, 에버랜드 놀이공원 운영매뉴얼 수출, 모토디자인·마다 등 디자인 수출

2. 우리나라 서비스수지 동향

- 우리나라 서비스수지는 '90년에 적자로 전환된 이후 외환 위기 직후인 '98년을 제외하고는 매년 큰 폭의 적자 기록
- '03년 서비스수지 적자는 76억불로 상품수지 흑자(222억 불)의 34.3%에 달하여 경상수지 흑자폭을 상당부분 상쇄
- 부문별로는 운수수지는 35억불 흑자인 반면, 여행수지(유학포함)와 기타서비스 수지는 각각 47억불, 64억불의 적자 기록

< 최근의 서비스수지 동향 >

(억불)

구 분	'98	'99	'00	'01	'02	'03
서비스수지	10.2	△6.5	△28.5	△38.7	△82.0	△76.1
- 운수 부문	12.2	14.9	26.4	21.4	19.1	35.2
- 여행 부문	34.4	19.6	△3.0	△12.3	△45.3	△47.3
- 기타서비스	△36.4	△41.0	△51.9	△47.8	△55.8	△64.0
(지재권분야)	(△21.1)	(△22.1)	(△25.3)	(△21.3)	(△21.7)	(△22.7)
(사업서비스)	(△11.4)	(△22.4)	(△31.3)	(△28.5)	(△36.0)	(△45.5)
상품 수지	416.7	284.6	169.5	134.9	147.8	221.6

* 자료 : 한국은행

- 선진국의 경우 미국·영국 등은 흑자, 독일·일본은 적자 기록
- 특히, 미국은 기타서비스와 여행부문에서 큰 폭의 흑자 기록

< 주요국의 서비스수지 현황 ('03) >

(억불)

국가별	서비스 수지				상품수지
	운 수	여 행	기타서비스	합 계	
• 미 국	△181	245	578	642	△5,816
• 영 국	△ 73	△254	499	172	△ 844
• 프랑스	6	133	24	163	△ 37
• 독 일	△ 52	△372	△129	△553	1,467
• 일 본	△ 77	△254	△ 64	△395	890

* 자료 : WTO

3. 서비스수출 제약요인

① 전반적인 서비스산업의 수출경쟁력 취약

- 서비스부문의 **비교우위지수**(’01 기준, 전체 경쟁력과 동등=1)가 0.83으로 **美·英 등 선진국에 비해 크게 취약**

* 국가별 서비스 비교우위지수 : 영국 1.47, 미국 1.43, 프랑스 1.12, 독일 0.69, 일본 0.74, 홍콩 0.92, 싱가포르 0.91

- 지식서비스분야의 경우 **제작능력은 경쟁국기업과 비슷하나, 전반적 기획력 및 마케팅역량은 60% 수준으로 취약**
(무역협회, 지식서비스기업 수출실태조사 결과, 2002.11)

* 게임산업의 경우 개발회사만 800~1000개가 난립, 이중 10% 수준만 수익발생

② 상품수출에 비해 수출지원제도 미흡

- 수출지원제도가 그동안 **상품수출 위주로** 운영되어 서비스 수출에 대한 무역금융·수출보험·마케팅 등 지원 미흡

- 서비스업체는 상품수출기업 대비 **담보문제, 무역금융·수출보험 등 수출지원제도에 있어서의 차별대우 지적**

* 수출보험 부보액 중 서비스수출 비중은 0.17%에 불과

- 이용가능한 수출지원제도의 경우에도 홍보 부족 등으로 **서비스수출기업의 10% 내외만이 이용하고 있음**

- 대금영수방식이 로열티 또는 런닝개런티가 주종인 서비스 수출의 특성상 **현행 수출지원제도로는 실질적 지원 곤란**

* (예) : 무역금융은 수출상품의 선적전 제조비용을 지원하도록 되어 있어 서비스수출기업은 수혜 곤란

③ 서비스수출 증대노력 미흡 및 인프라 취약

- 그동안 서비스산업의 내수위주 발전으로 정부 및 업계의 서비스수출에 대한 관심과 수출증대노력 저조
 - 서비스산업은 특성이 다른 수많은 부문으로 구성되어 있어 모든 서비스부문을 포괄하는 수출증대대책 추진 곤란
- 해외시장정보·마케팅網·지원체제 등 수출인프라도 상품수출에 치중되어 서비스기업의 수출여건도 불리
 - 서비스는 해외투자에 수반되거나 중장기 프로젝트 성격이 커서 수출초보기업의 경우 시장진출이 용이하지 않음
- 서비스부문을 위한 지원기관이 산재하지만, 기능별·부문별 지원기관간 연계체제 미흡으로 지원 효율성 저조

④ 서비스수출 실태파악 및 애로해소 체제 미흡

- 서비스의 무형성·暗黙거래 등의 특성으로 상품에 비하여 해외시장 동향의 파악과 거래선 발굴에 어려움
- 서비스교역 통계가 대분류 위주로 되어 있어 서비스수출의 실태파악이 어렵고*, 수출기업의 애로해결채널도 미흡

* 현재 서비스교역통계는 한국은행이 11개 항목(28개 세부항목)으로 파악하고 있어 상세 서비스분야별 교역동향은 파악하기 곤란

- 서비스의 경우 불법복제로 인한 산업재산권 침해소지가 크나 현지 모니터링 및 법적 대응 지원 미흡

* 캐릭터, 디자인, S/W 등의 경우 불법복제에 대한 대응이 시장개척의 중요 요소

Ⅲ. 그간의 추진실적

◇ 2002.8월 산자부 주관 민관합동T/F를 통해 「지식서비스 수출 활성화대책」을 수립·추진중

□ 지식서비스를 ‘무역’ 범위에 포함하도록 대외무역법 개정 ('04.1월 시행)

* 지식서비스 수출기업도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근거규정 마련

□ KOTRA에 「IT/지식서비스 수출지원센터」를 설치('03.5월) 하여 서비스분야 해외시장정보 제공 및 마케팅활동 지원

* 수출상담화시장개척단 파견(15회)으로 상담 4억불, 계약 4천5백만불 성과 거양

□ 서비스수출 성공사례집을 발간하여 서비스 수출기업의 해외 시장개척을 위한 벤치마킹 자료로 제공

* 「성공기업의 사례로 보는 서비스수출 길라잡이」(무역협회, '03.12월)

□ 지식서비스 수출기업 실태조사 실시 (무역협회, 02.11월)

* 수출실적이 있는 서비스수출기업 75개사 대상

< 실태조사 주요 결과 >

- 수출경쟁력 결정 요소 : 제품 기획 및 개발 능력(51%), 마케팅(27%), 현지화(8%)
- 수출경쟁력 강화방안: 해외마케팅 채널 구축(42%), 해외시장정보 제공(18%)
- 해외마케팅 수단 : 해외전시회 참가(32%), 현지 Agent 활용(32%), 바이어에 직접 판매(23%)

IV. 서비스수출 증대대책

< 서비스수출의 중요성 >

- ◇ 서비스수출은 지속적인 경상수지 흑자기조 유지 및 국가 경쟁력 강화*의 관건

* 스위스 IMD의 국가경쟁력보고서에서 우리나라의 교역부문 경쟁력을 낮게 평가(49위)한 것은 서비스 교역규모가 적은데 기인

- ◇ 세계경제의 지식정보화 진전으로 서비스교역규모가 계속 증가할 전망이므로 이를 활용한 서비스수출의 획기적 증대 필요
 - 상품과 서비스무역의 동반 발전을 통한 국민소득 2만불 시대의 조기 실현 도모

< 서비스수출 증대를 위한 기본방향 >

- ◇ 서비스 부문별 경쟁력강화대책을 차질없이 추진하여 전반적인 수출경쟁력을 제고
- ◇ 서비스수출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수출지원을 강화하고 인프라를 확충하여 서비스기업의 수출여건을 개선
 - ① 상품수출에 준하는 수출지원제도의 확충
 - ② 서비스수출 지원 인프라의 확충
 - ③ 해외마케팅 지원 및 국제협력 강화
 - ④ 범정부적인 서비스수출 지원체제 운용
- ◇ 아울러, 수출유망 고부가가치 서비스 분야에 대하여는 부문별 특성에 맞는 수출증대대책 적극 추진

1. 상품수출에 준하는 수출지원제도의 확충

□ 무역금융 및 수출보험제도의 개선

- 서비스수출기업에 대한 무역금융 지원이 활성화되도록 韓銀을 통해 외국환은행에 대한 창구지도를 강화하면서,
 - 로얄티 또는 런닝개런티 위주 서비스수출 대금 영수의 특성을 반영하여 무역금융 및 수출신용보증제도 개선
- 중장기수출보험('04 : 14조원) 및 輸銀 연불수출금융('04 : 16조원)을 통해 수입국 정부의 무보증 서비스수출에 대하여도 지원
- 중장기적으로 비신용장방식 수출, 수출대금 미확정, 물적담보 부족 등 서비스수출 특성에 맞는 맞춤형 지원제도 마련

* 이를 위해 輸保·輸銀·信保·技保 등 지원기관으로 실무T/F 구성 운영

□ 엔지니어링·SI 등 프로젝트성 서비스수출에 대한 지원 확대

- 대외경제협력기금(EDCF)과 KOICA의 개도국 무상원조 사업을 활용한 프로젝트성 서비스수출 지원
- 프로젝트 성격의 해외 엔지니어링·SI 수주에도 타당성 조사비용 지원

* '04년 30억원 규모 지원 (산자부 20억원, 정통부 10억원)

□ 대한상사중재원에 지식서비스 관련 전문 중재인을 보강하여 서비스수출에 있어서의 분쟁 해결 지원

* 현재 중재인(국내주재) 816명 중 서비스 관련 중재인(건축기술지적재산권)은 257명

2. 서비스수출 지원 인프라의 확충

□ 상품무역에 준하는 서비스 무역통계체계 구축

- 대외무역법상 ‘무역’으로 인정되는 서비스의 범위를 지식 서비스에서 전체서비스로 확대 (대외무역법령 개정)
- 구체적인 서비스 부문별 교역흐름을 파악할 수 있도록 서비스교역통계 분류체계를 세분화 (韓銀, 2005년 시행)
 - OECD의 Extended Balance of Payment(EBOP)를 토대로 세분화 (11개 항목, 28개 세항목 → 11개 항목, 70개 세항목)
- 매월 부문별 서비스 수출동향 및 전망, 해외시장 동향 등을 분석·공표 (2005년부터)

* 현재는 매월 收支 위주로 서비스교역통계 공표(韓銀)

□ 수출초보단계의 서비스 수출기업에 대한 법률·마케팅 등 컨설팅 지원제도 도입

- 무역협회에 「서비스무역지원센터」를 설치하여, 법률 상담* 및 수출지원제도 종합안내

* 현재 週 1회 실시하고 있는 변호사 상담을 週 2~3회로 확대

- KOTRA 「IT·지식서비스 수출지원센터」(4명)의 인원·기능을 보강하여 해외마케팅에 대한 컨설팅 지원
 - 해외에서도 KOTRA 해외무역관이 주도하여 컨설팅기관, 법률자문기관 등으로 국내기업에 대한 지원네트워크 구축
- 라이선스계약 등으로 법적 전문성이 요구되는 서비스 부문별 「표준 수출계약서」 작성·보급

3. 해외마케팅 지원 및 국제협력 강화

□ 서비스 수출지원기관의 마케팅 지원역량 보강

- 서비스수출 유망지역 소재 KOTRA 무역관에 지식서비스 전문가를 보강하여 해외마케팅 지원거점으로 운영
 - 중소기업지사화사업 대상에도 서비스수출기업 포함
- 문화콘텐츠진흥원, 해외IT지원센터(iPark), 정보통신수출진흥센터 등을 활용하여 서비스분야별 특성에 맞는 해외마케팅 지원 강화
 - * 현재 문화콘텐츠진흥원은 4개국 4개소, iPark는 5개국 8개소의 해외지원조직 운영

□ 해외시장정보 수집·조사 확대

- KOTRA 해외무역관을 통하여 서비스 부문별 해외시장 동향 및 수출유망분야를 조사하여 수출기업에 제공
 - * 관계부처 중심의 문화콘텐츠IT 등의 분야별 수출종합정보시스템 구축운영
- 해외마케팅 지원기관과 업계 공동의 수출유망시장 조사 및 현지 Agent 발굴 등을 위한 비용 지원 (소요비용의 70% 수준)

□ 서비스분야 국내외 전시회 참가지원 확대

- 서비스수출기업의 해외전시회 및 시장개척단 참가 지원을 확대하고, 해외 한국상품전 개최시 문화행사 병행
 - * '04년 중 서비스 분야 해외전시회 47회, 시장개척단 16회 파견
- 국내 서비스전시회 개최 확대 및 외국바이어·업체 유치 지원
 - * '04년 중 서비스분야 국내전시회 60회 개최 예정

□ 해외 수출환경 개선을 위해 서비스부문별로 정부·민간 단체간 국제협력 강화(문화, 정보통신, 기술·디자인 등)

4. 범정부적인 서비스수출 지원체제 운용

□ 「서비스수출대책회의」(산자부장관 주재)를 반기별로 개최하여 서비스 수출동향 점검 및 수출증대방안 강구

- 서비스 부문별로는 각 주무부처 중심으로 수출지원조직과 함께 전문적이고 일관된 지원체제 구축·운영

□ 서비스산업 실태조사를 통한 수출애로 발굴·해소

- 매년 서비스수출업계의 수출현황·수출애로 및 건의사항에 대한 실태조사 실시 (산자부·무협 공동, 관계부처 참여)
- 수출애로 및 건의사항에 대하여는 KOTRA·輸保·輸銀 등 수출지원기관이 참여하는 T/F를 통하여 개선방안 마련

□ 「유망 서비스수출기업」 발굴·육성

- 수출유망 지식서비스기업을 발굴, ‘수출유망 중소기업’에 준하여 수출지원 우대 및 밀착적 마케팅 지원
 - * 해외시장정보제공, 바이어 발굴, 수출대금 회수까지 일괄 지원
- 서비스수출 성공사례의 발굴·보급 확대 (연 2회)

□ 서비스수출 기반 강화 및 해외진출여건 개선

- 분야별 서비스 표준 제정·보급 확대(현재 13개) 및 외국의 서비스 무역장벽 완화노력* 경주
 - * 산자부 기술표준원내 외국 기술장벽 조사연구팀 확대 운영 (6개→10개)
- 「해외지적재산권보호센터」(특허청) 및 서비스수출 지원기관의 해외조직을 통해 외국기업의 지재권 침해에 대한 대응 지원
 - * 서비스 수입국 기업의 지재권 침해행위를 적극 발굴, 정부간 협의를 통한 해결 및 기업차원의 지재권 보호방안 지도

< 주요 서비스 분야별 수출증대대책 >

(1) 문화산업

□ 韓流를 활용한 마케팅 및 동북아 문화산업 협력 주도

- 韓流 지속화를 위해 「문화산업교류협력센터」 설치 추진
(상해, 하노이, 타이베이, 방콕, 쿠알라룸푸르 등)
- 한국 드라마에 관심이 높은 중·동유럽에 TV 드라마 소개로 방송콘텐츠 신시장 개척 지원
('04.하반기 인기드라마 '울인'을 외국방송사에 무상 제공·방영)

□ 한·중·일 문화산업콘텐츠포럼을 3국간 문화산업 정례 협의체로 정착

□ 월드사이버게임(WCG)을 통한 게임산업강국 이미지 제고 및 국내 문화상품 전시회를 국제수준으로 육성

(2) 정보통신서비스

□ 선진국·중남미·중동 등 정보화 신흥시장을 대상으로 플랜트·건설산업과의 동반진출을 통한 해외진출 활성화

- 정부간 협력사업과 민관합동 수주지원단 파견을 통해 해외SI사업 수주 확대

□ 美 국방성의 CMM* 등 S/W 사업자 평가기법 도입으로 국제신인도 제고 및 국제수준의 품질경쟁력 확보

* CMM(Capability Maturity Model) : 세계적으로 가장 신뢰성을 인정받고 있는 美 국방성의 S/W사업자 평가모델

□ 해외 수출환경에 적합하도록 콘텐츠의 현지화 지원과 현지 테스트를 위한 글로벌 테스트 베드 운영

- * 현지화 지원 : 지원대상 분야에 따라 3천만원~5천만원 지원
- * 글로벌테스트베드는 미주를 우선 구축하고 연차별로 확대

□ 중소 S/W 및 디지털콘텐츠기업을 대상으로 해외진출 전략수립 지원 및 해외마켓채널 발굴 등 지원

□ 세계적 수준의 국내전시회 개최로 소프트웨어 및 디지털콘텐츠 산업의 위상 강화

- * 소프트엑스포(Softexpo)/디지털콘텐츠 Fair 개최 ('04. 12월)

(3) 관광산업

□ 외래관광객 유치 확대를 위한 적극적 마케팅 추진

○ 중국·일본·동남아 등 주요 시장별로 차별화된 마케팅 전개

- * 중국 : 복수비자 발급추진, 코리아센타(북경) 등 마케팅거점 확대
- * 일본 : 한류스타 홍보마케팅, 한·일 공동방문의 해 등 우호교류 무드 확산
- * 기타지역 : 한류상품, 교포 등 연고시장 공략, 아테네올림픽 한국관광홍보관 운영

□ 한국을 대표하는 국제적 수준의 문화관광상품 개발 육성

○ 5대궁궐을 이용한 '궁궐상품' 및 대중문화-엔터테인먼트-쇼핑이 연계된 고부가가치 한류 관광상품 등을 육성

□ APEC 정상회담, 세계화상(華商)대회('05.10월) 등 대형국제 회의 및 이벤트 유치 추진

- * '08년, 연간 200회 개최, 세계15위권 진입 목표

(4) 해운서비스

☐ 국제해운협력 강화를 통해 국적선사의 해외영업여건 개선

- 외국적 선박에 대한 차별조치가 있고 향후 성장잠재력이 큰 인도·브라질·이란 등과 해운협정 체결 추진

* 해운협정체결현황 : 발효(중국 등 14개국), 가서명(러시아 등 6개국)

☐ 중·장기 소요선박의 일괄발주 등 국적선사의 운임경쟁력 확보방안 마련

(5) 특허 등 지적재산권

☐ 미국·러시아·중국·이스라엘·베트남 등 5개국 11개 기술 이전 전문기관과의 협력네트워크 구축 (기술거래소)

- 주요 기술수요국을 대상으로 기술수출상담회 개최
(‘04.5월 중국 심양, ‘04.6월 동경·오사카 등)

☐ 수출유망 기술에 대한 시장성·타당성 평가, 수출계약에 대한 법률자문, 현지화작업 등 종합지원프로그램 운영

(6) 디자인·전시산업

☐ 디자인 해외로드쇼(‘04.11월, 북경) 등을 통한 우수디자인제품 홍보 및 외국 디자인업체와의 협력네트워크 구축

* 동북아 디자인포럼, 한·중 디자인 공동연구 등

☐ 「동북아 전시주최자 협의회」를 주도적으로 창설, 한·중·일간 전시회 연계 개최로 전시업체의 해외진출 활성화

V. 향후 추진일정

세 부 과 제	추진일정	소관부처
1. 상품수출에 준하는 수출지원제도 확충	'04 4/4분기	산자부
2. 서비스수출 지원 인프라 확충		
○ 서비스 무역통계체계 구축	'05 상반기	산자부
- 서비스교역통계 분류체계 세분화	'05 상반기	한국은행
○ 서비스 무역지원센터 설치	'04 하반기	산자부 (무협, KOTRA)
3. 해외마케팅 지원 및 국제협력 강화		
○ 수출마케팅 지원 역량 확충	'04 하반기	산자부, 문광부, 정통부
○ 해외시장정보 수집·조사 확대	'04 3/4분기	“
○ 국내외 전시회 참가 지원 확대	계속	“
○ 정부·민간단체간 국제협력 강화	“	“
4. 범정부적 서비스수출 지원체제 운용		
○ 수출대책회의 정례 개최	'04 하반기	산자부 (문광부, 정통부 등)
○ 서비스산업 실태조사	'04 3/4분기	무역협회
○ 유망서비스 수출기업 발굴·육성	'04 하반기	산자부
○ 수출기반 강화 및 해외진출여건 개선	'04 하반기	산자부, 문광부, 정통부, 특허청
5. 주요 서비스분야별 수출증대대책	연중	산자부, 문광부, 정통부, 해양부